

## 令和 3 年 (2021 年) 의 회양 집행대해서

사이다이지 회양봉찬회

회 장 오모리 미노루

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짐으로, 언제 해결 될 지모르는 이 상황에서 모든 행사가 중단또는 축소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

이러한 중 작으만한 힘이지만 사이다이지 회양이 어떻게 1000 년간 연명했는가를 선인의 진지에서 듣고, 한번더 발자취에 배움을 얻었습니다.

헤안시대[794 년 ~ 1184 년]에는 거듭되는 전염병으로 교토의 인구 3 분의 1 이 사망하고 무로마지시대[1333 년 ~ 1573 년]에는 사이지 본당이 화재로 소실 되는 때에는 유연의 절원의 본당을 이축하는 회양이 집행했습니다. 이러한 회양 500 년 역사는 한번도 없어지지 않고 무사이하하게 이어져왔습니다.

회양의 어원은 일양내복[一陽來復], 매서운 추위에서 이겨내고 봄의 따뜻한 양기를 맞이하다. 악한 일이 이어지는 뒤에 좋은 기운이 드러오는 것 입니다.

내년令和 3 年 회양는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를 주지스님도 회양봉찬회등 관계자에 자문하는 과정에서"지금 일수록 회양의 기도"가 중요한 일인 것 이다는 결론에 도착하였습니다. 그 기도 일 수 록 천하가 태평천국하고 오곡백과가 풍요로우면서 역병평정[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]하는 데 있습니다

그렇지만 감염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책임감에서 가이드라인의 따르도록 회양의 본질을 잃어 버리지 않는 방법을 근본부터 생각해 됐었습니다.

여러분의 의견이 여러가지 일 수도 있지만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

令和 3 年 ( 2021 年 ) 의 회양집행방법 주의사항

- 관계자만 참가함
- 20 : 30~23 : 00 시간 사이하 관계자이외 사찰의 내 들어가는 것 금지
- 관련행사[소년알몸축제, 여성회양기도참배, 봉납연무, 회양복, 회양겨울불꽃놀이, 노점등] 전부 중단